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4. 24.(수) 11:00 < 4.25.(목) 조간 > 배포 2024. 4. 24.(수)

한-독 디지털 전환 및 산업기술 협력 확대키로

- 인공지능(AI)·산업데이터 표준 등 한-독 디지털 전환 협력 체계 구축
-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통해 글로벌 개방형 혁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독일 측과 디지털 전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독일 현지에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해 양국 기업·연구소 간 개방형 혁신 촉진에 나선다.

산업부는 4월 23일(화) 독일 하노버에서 독일 정부의 산업 4.0(Industrie 4.0)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 공동기구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ie 4.0)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인 제조-X(Manufacturing-X)에서 추진 예정인 화학, 기계, 자동차 등 분야의 산업데이터 표준 및 공유 활용 체계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산업디지털 전환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4월 24일(수)에는 프라운호퍼 하인리히 헤르츠 연구소(HHI, 독일 베를린 소재)에서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프라운호퍼는 산업부가 지난 4월 초에 선정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6곳* 중 하나로서, 모빌리티,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76개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전적인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수행하는 한편, 정보제공, 국내 기업 현지 지원, 사전/사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독(獨) 프라운호퍼, 미(美) MIT, 예일, 존스홉킨스, 퍼듀, 조지아텍 : 공동 연구개발(R&D) 수요 발굴, 최적 파트너 매칭, 과제기획 지원 및 국내 연구자 현지 지원 등 기술협력 플랫폼 역할 수행

아울러 우리 산업용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거래시 애로사항으로 꼽는 산업 AI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도 독일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독일 전기기술협회(VDE)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AI 시험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유럽의 제조 강국 독일과의 산업데이터 협력 체계 구축은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와 관련해서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우리 기업들의 협력 수요가 가장 큰 기관인 만큼 양국 기업-연구소 간 다양한 협력 과제가 발굴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4540)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예은 (044-203-4542)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용민 (044-203-4530)
	산업기술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열 (044-203-453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